

성공 및 실패사례의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상호작용

권 희 경[†]

안 창 일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 과정에서 보이는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상호작용현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성공 및 실패 사례의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를 각각 평정하고, 저항과 태도변인에 대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공 사례에서는 내담자 저항 뒤에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의 증가가 있었으나, 실패 사례에서는 내담자 저항 뒤에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의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성공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이 후 내담자 저항을 감소시켰으나, 실패사례에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저항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상호작용 패턴은 상담 지속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들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저항, 상담자 태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 시계열분석

내담자 저항은 상담의 목적과는 위배되는 행동이나 태도들로 넓게 정의될 수 있다. 대개의 상담자들

은 자신의 이론적 입장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저항을 만나게 되며, 이는 치료적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 희 경 / 서울청소년 종합상담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56번지 / FAX : 02-2285-1315 / E-mail : Jangpsy@unitel.co.kr

진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상담 과제를 안게 된다.

저항의 해결이 상담자의 중심적인 과제로 간주되면서, 저항에 기여하는 상담자 요인과 기법들에 대한 논의들이 각 이론적 접근들마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정신 역동적 입장에서는 저항의 해결을 위해 저항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내담자 저항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공감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필수적이라 하였다(Greenson, 1967; Streaan, 1985; Brenner, 1976; Fine, 1982). 그리고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치료자의 때 이른 해석이나 치료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한 결과로 저항이 유발된다고 하면서, 저항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상담자는 공감적, 수용적, 일치적 태도들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Rogers, 1957; Truax & Carkhuff, 1967; Hadley & Strupp, 1976). 또한 인지 행동적 입장에서는 치료적 기법의 오류나 치료자의 관계형성 노력의 부족으로 저항이 증가되거나 유발된다고 하면서, 저항이 계속될 경우 치료자가 자기 검토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Goldfried, 1982).

이러한 논의들은 저항 현상이 내담자에 의해 출현된다고 하여도 상담자의 개입여부에 따라 저항이 유지, 증가 혹은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angs(1981)는 저항을 내담자와 상담자의 양인적 상호작용(bipersonal interaction)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내담자 저항이 상담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한 상담자 개입이 또 다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항 현상에 기여하는 상담자 개입과 그 상호작용적 현상은 저항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저항 연구들은 주로 저항 척도의 개발(Chamberlain, Patterson, Reid, Kavanagh, & Forgatch, 1984; Shuller, Crits-Christoph, & Connolly, 1991; Mahalik, 1995) 및 저항과 단편적인 상담자 반응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정도에 머물러있는 상태이다(조성호, 1997; Garduk & Haggard, 1972; Mahalik, 1985; Patterson & Forgatch, 1985). 이와 같이 저항의 상호작용적 요

인이 연구되지 못한 이유는 저항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더 적어서가 아니라, 상호작용적 현상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론상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내담자 저항이 상담자와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전개되는 현상임을 가정하고 내담자 저항이 상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 저항에 미치는 상호작용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실제 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저항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저항과 상담자 태도에 대한 이론적 문헌들과 선행연구들을 개괄한 후, 본 연구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저항과 상담자 태도에 대한 이론적 견해

저항은 최초로 Freud에 의해 “불안을 유발하는 기억과 통찰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모든 노력이다(Freud, 1917)”로써 정의되었다. 이 후 저항의 기제와 전략들을 정교화한 Greenson(1967)은 “저항은 반대를 의미하며, 분석의 절차와 과정에 반대하는 환자 내부의 모든 힘들, 즉 자유연상을 방해하고, 통찰을 얻고 통찰을 소화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자아 및 변화에 대한 소망에 반대하는 모든 힘들이다”라고 정의하였다.

Greenson(1967)을 포함한 최근의 정신역동 치료자들(Basch, 1982; Fine, 1982; Brenner, 1976)은 치료자의 역전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저항에 기여하는 치료자 요인, 즉 치료자의 잘못된 개입이나 역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결과로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Streaan, 1985). 뿐만 아니라 정신역동적 치료자들은 저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저항의 분석 못지 않게 저항에 대한 치료자의 태도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저항의 의미를 통찰하고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저항에 대한 치료자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가령 Fine(1982)은 내담자가 그들의 저항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탐색할 때 그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경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방자(1998)는 내담자의 저항하는 마음은 치료자의 계속적인 이해와 치료자가 제공하는 치료 동맹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지행동적 접근의 Meichenbaum과 Gilmore (1982)에 의하면 저항은 “자기와 세상에 대해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라 하였다. 행동 치료 문헌에서는 저항이란 용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치료적 비협조(therapeutic noncompliance) 행동”이 저항의 의미로 사용된 바, ‘치료적 비협조란’ 주로 처방된 행동적 할당 과제들에 대하여 잘 따르지 않거나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Turkat & Meyer, 1982). 인지 행동적 접근에서도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을 내담자 특유의 요인보다는 주로 치료자 개입의 오류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치료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의 원인은 종종 치료자의 부적절한 기법이나 평가에 의해 비롯되며, 치료자의 관계형성의 부족에 기인된다고 한다(Goldfried, 1982; Lazarus & Fay, 1982).

또한 Wessler와 Wessler(1980)는 Rogers의 치료적 조건에 동의하면서, “우리도 내담자 변화를 위해 이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조건들은 비지시적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지시적 상담에서도 의미가 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법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고 하였다(Corey, 1991).

인본주의 및 실존주의 접근에서는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 치료자 요인을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Rogers(1954)는 저항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담자의 방어성’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치료의 초기단계에서 내담자들은 자기 노출을 꺼리고 경험에 대해 개방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것은 그들의 경직된 자아개념이 위협을 받아 불안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 때 상담자가 내담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급한 해석을 한다든지, 내

담자를 조건적인 인정을 하거나 혹은 지시적인 태도를 지닐 때 불안이 유발되고 방어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Rogers는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의 기본적인 치료적 태도들(수용적, 공감적, 일관성)이 필요충분조건이라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호균(1983)은 내담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그들의 현실이나 상담자를 왜곡하여 지각하고 이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데, 이 때 상담자는 그러한 왜곡된 반응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참고 견디며, 계속 그들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맺힌 욕구와 감정을 이해,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항에 대한 각 이론적 접근의 견해들을 요약하면, 비록 내담자 저항이 내담자의 성격구조나 갈등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상담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특히 저항에 대한 상담자 태도는 저항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간주된다.

2. 저항을 다루는 상담자 개입의 효과 연구

어떻게 저항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주장이 Greenson(1967)에 의해 체계화되면서 저항에 대한 정신역동적 기법의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진척되었다. Foreman과 Marmar(1985)는 내담자에게 방어를 직면시키는 것은 작업동맹을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성과를 이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성공 사례의 치료자들은 환자의 방어를 직면시키고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내담자의 감정을 거론하며, 그리고 내담자의 방어와 치료자에 대한 내담자의 왜곡된 감정들간의 관련성을 부각하는 반응들이 비 성공 사례들에 비하여 더욱 많았다.

최근에는 저항을 다루는 기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됨으로써, 내담자 저항을 직면하거나 해석하는 기법이 저항 감소와 성과에 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Winston, Winston, Samstag 및 Muran (1994)은 DSM-IV의 축 II의 C군의 성격장애 환자 28

명을 대상으로 단기 역동 심리치료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방어적 행동에 대하여 치료자가 직접적으로 직면시킨 치료적 효과를 연구했다. 결과는 치료 초반기와 후반기에서 방어 감소가 유의미하게 일어났고, 치료자가 직접적으로 방어를 거론하는 빈도(Therapist Addressing Defense)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원시적 방어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성과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최근들어 Kivlighan, Patton 및 Multon(1996)은 저항에 미치는 정신역동적 저항 전략의 효과를 보다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저항을 다루는 정신역동적 전략을 치료자가 적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MARS; Missouri Addressing Resistance Scale)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저항전략에 대한 Greenson의 모델과 Strupp 등(1992)의 Vanderbilt Psychotherapeutic Strategies Scale을 토대로 하여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치료자가 어느 정도로 내담자의 저항을 직면하게 하며, 저항의 원인과 관련 동기를 탐색하고 극복하도록 개입한 정도를 측정한다. MARS의 요인분석 결과, 두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하나는 저항을 거론하는 것(addressing)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을 탐색하는 것(exploring)이었다. 이들은 시계열 분석 방법을 통하여,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가 저항을 조명하고 거론하려는 시도를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후속회기에 상담자의 탐색적 기법의 시도를 증가시켰으며, 다시 이것은 저항 감소 및 성과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저항을 거론하여 직면시키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만은 아니다. 집단상담을 연구한 Yalom과 Lieberman(1971)에 의하면 저항이나 방어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했을 때, 치료동맹이 떨어지고 탈락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개인상담을 연구한 Hadley와 Strupp(1976) 역시 치료자가 내담자 방어에 대해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거나 공격적인 주장들을 할 때, 치료자와 내담자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내담자 저항을 직면하는 기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저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가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음을 예상하

게 한다. 해석과 저항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Luborsky, Bachrach, Graff, Pulver 및 Christoph(1979)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사례에서는 치료자의 전이 해석에 뒤이어 저항이 증가되지 않았지만, 이에 비해 비성공적인 사례에서 전이해석에 뒤이어 저항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Mahalik(1994)은 숙련된 치료자들(Ellis, Prells, Rogers)이 행한 상담사례에서 그들의 해석적 개입은 저항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저항감소의 결과는 아마도 해석시의 상담자 태도가 중요한 매개변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내담자 저항과 같은 이러한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서 상담자의 태도 변인은 특정한 기법이나 전략들에 선행하는 중요한 측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저항 해결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태도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상담자 태도에 관한 연구

상담자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상담자 태도와 최종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주력하였을 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관계는 단지 기존의 상담자 태도의 연구 결과들의 개관이나 문헌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상담자 태도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기술될 수 있다. 하나는 공감을 위시한 여타의 촉진적 조건들과 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과에 미치는 상담자 태도와 상담자 기법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먼저 전자에 해당되는 초기의 연구로, Truax와 Carkhuff(1967)는 공감, 무조건적 존중, 그리고 일치성과 같은 촉진적 조건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하고, 이러한 조건들은 치료 성과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Truax & Mitchell, 1971; Altman, 1973; Banks, 1972; Jones, Wynne &

Watson, 1986)은 공감 및 촉진적 조건들은 긍정적인 성과(내담자 보고, 치료자 보고, 제 3의 관찰자 보고, 및 객관적 검사에 의해 측정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한편 다수의 연구들(Parloff, Waskow & Wolfe, 1978; Beutler, Johnson, Neville & Workman, 1972; Garfield & Bergin, 1971)에서는 공감 및 촉진적 태도와 성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아직은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비일관된 결과들을 토대로, Strupp(1973)는 Rogers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한다고 하면서, 상담자의 '좋은 인간적 관계'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 자체로서 충분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Bergin과 Suinn(1975) 역시 "고도로 특수한 내담자 중심적 조건들을 제외하고" 공감 및 다른 촉진적 조건들이 성과를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로, Lambert와 Bergin(1992)에 따르면 공감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의 치료 성과와 더 관련이 된다고 함으로써, 공감의 부분적인 효과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 태도와 성과의 관련성을 보다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상담자의 태도 이외 내담자 변인 및 상담자 기술 및 숙련성과 같은 요인의 효과를 통제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맥락에서 두 번째의 연구 패러다임이 진행된 바, 성과에 기여하는 기법과 태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Strupp와 Hadley(1979)는 통제된 연구에서 상담자 기법에 비해 상담자의 관계형성 능력이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공감적이고 배려 깊은 관계 형성을 잘하는 교수와 특정한 전략과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적 상담자에게 20회기의 상담을 진행하게 한 뒤, 그들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과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다소 논란이 있을지라도, 상담자의 자질과 관계형성의 능력은 기술에 비해 더 중요한 변인임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상담기법에 치중하게 될 때 상담자 태도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밝힌 최근의 연구로, 상담 기법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는 연구가 있다. Henry, Schacht, Strupp, Butler 및 Binder(1993)는 실험에 참가한 상담자들에게 단기 우울증 심리치료를 위한 치료 지침서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 훈련 전 후의 상담자의 기술과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훈련전과 비교할 때, 상담의 기술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상담태도에서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즉 치료지침에 따라 훈련을 시킨 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더 탐색적이고 더 촛점적으로 된 반면에, 상담자 태도면에서는 덜 지지적으로, 덜 승인적으로 그리고 더 권위적이며 더 방어적인 경향성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상담자가 기법에 대하여 집중하게 될 때, 상담 태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담자 태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권희경(1999)은 상담자 태도 척도의 준거 관련도 타당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상담자 태도와 작업동맹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담자가 판단적이고 강의적일수록 내담자는 상담자와 유대감을 더 적게 느끼지만, 상담자가 수용적, 온정적, 지지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내담자는 유대감을 더욱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상담자 태도가 상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상담자 태도가 상담 과정 중의 내담자 저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렇듯 상담자 태도가 상담 과정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다 발전되어야 할 부분은 상담자의 태도가 상담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특히 상담 과정에서도 상담자 태도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내담자 변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상담자 태도가 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앞서 저항을 다루는 기법에 대한 이론적 문헌에서 언급되었듯이,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담자 태도가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상담에서의 상담자 태도의 역할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문제 제기 및 연구 과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저항연구들은 저항을 다루는 개입들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담자 저항의 증감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양인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간주할 때, 앞으로의 저항 연구방향은 상호작용의 현상을 밝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Patterson & Forgatch, 1985; 조성호, 1997; Mahalik, 1994; Foreman & Marmar, 1985; Garduk & Haggard, 1972)이 사용한 단순 상관 및 빈도의 분석과 평균치 차이검정은 저항과 상담자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결과들만 축적하였을 뿐, 특정한 상담자 변인이 내담자 저항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다시 내담자 저항이 상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상호작용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선행연구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저항 현상을 상호작용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그 방법상의 한계로 상호작용 현상 자체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 연구들이 지니는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이질적인 다수 상담 사례의 평균치 사용의 문제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호작용 특성은 각 사례에 따라 독특하고 이질적이다. 그러나 이질적 사례들의 점수들을 평균함으로써 특정사례가 지니는 독특성을 알 수 없게 한다. ② 상담이 지닌 시계열적 관점의 부재의 문제를 지닌다. 저항 현상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계속되는 상호작용적 현상임을 감안할 때, 시간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담자의 개별 반응과 내담자 저항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은

저항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김인규, 1992).

그러므로 내담자 저항의 상호작용적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① 시계열적 관점에서 저항과 상담자 반응을 관찰하는 것 ② 동질적 상담 사례를 분석하거나, 특정한 상호작용 패턴을 보이리라 예상되는 소수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 ③ 두 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비교적 잘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Kivlighan, Multon & Patton, 1996; Jones, Ghannam, Nigg & Dyer, 1993) 소수 사례의 시계열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소수 사례의 시계열 분석이란 개별 사례를 분석단위로 하여 각 사례마다 시계열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 특성의 변화 과정과 특성간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국내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구 분야에서도 시계열 분석 방법은 소수 사례에 대한 상담 상호작용의 연구에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권정혜, 1991), 특히 Gottaman과 Markman(1978)에 따르면 “특정한 치료자 행동은 내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혹은 특정한 내담자의 행동은 치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은 개인내 수준(intrasubject level)에서 분석되는 시간 계열 분석으로 대답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상담자 태도 변인도 그 중요성에 비하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Lambert, DeJulio 및 Stein(1978)에 따르면 “주로 연구들은 상관분석을 통하여 공감 및 촉진적 태도와 성과의 전반적인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원인-효과 증거의 결핍(lack of cause-effect evidence)의 문제를 갖는다”고 하였다. 특히 상담자 태도와 상담 성과의 전반적인 관련성에만 주목한 결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 가령, 상담자 태도가 상담 관계나

내담자의 상담 참여도의 과정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상담 성과에 연결될 것으로 추측되나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계열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상담의 성과에 기여하는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의 태도의 상호작용 패턴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공 및 실패 사례의 전체 회기에서 드러나는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변화 패턴을 시각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 성공 및 실패 사례는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에서 서로 다른 상호작용 패턴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 현상은 교차 상관 분석의 시간 간격에 따른 관련성(time-lagged relationship)¹⁾의 검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성공 사례의 경우, 내담자의 높은 저항 수준은 상담자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취할 단서(signal)로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저항수준의 증가는 긍정적 태도의 증가 혹은 부정적 태도의 감소를 이끌 것이다.

가설 2 : 실패 사례의 경우, 내담자의 높은 저항은 상담자의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취할 단서(signal)로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저항 수준의 증가는 부정적 태도의 증가 혹은 긍정적 태도의 감소를 이끌 것이다.

가설 3 : 성공 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의 증가 혹은 부정적 태도의 감소는 이후 시점의 내담자 저항의 감소를 이끌 것이다.

가설 4 : 실패 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의 증가 혹은 긍정적 태도의 감소는 이후 시점의 내담자 저항의 증가를 이끌 것이다.

1) 시간간격에 따른 관련성 : A변인과 B변인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서로 관련되는 정도를 말한다. 가령, 시점1의 저항점수와 시점2의 태도점수의 상관관계는 lag 1의 상관, 시점 1의 저항과 시점 3의 태도는 lag 2의 상관으로써, 각 lag의 상관관계수는 저항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혹은 태도가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연구 방법

1) 내담자

초기 저항 수준과 사전 문제 심각도 수준이 비슷하였으나, 하나는 성공한 사례를, 다른 하나는 실패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두 사례의 내담자는 1998년 3월에 대학 상담소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여자 대학 1년생이었다. 성공 사례는 14회기에 종결된 사례로, 상담자에 의해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던 사례로 추천되었으며, 실패 사례는 9회기에 내담자의 의사에 의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채 종결되고, 상담자도 성과를 얻지 못한 사례로 판단된 것이었다. 성공 및 실패사례의 사전 문제 심각도 수준과 그 성과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문제 심각도를 반영하는 3개의 측정치의 사전 사후 측정치들과 상담효과 측정치²⁾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문제 심각도를 반영하는 3개의 측정치들은 간이정신 진단 검사³⁾의 전반적 증상 심각도 지수(GSI)³⁾, 주관적 문제영역별 심각도⁴⁾, 자존감 척도이다.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성공사례는 문제심각도를 반영하는 3개의 측정치에서 감소를 보이며, 회기직후에 내담자에게 평가되는 상담효과측정상에서도 점진적

2) Battle 등(1965)이 제작한 주 호소문제(Target Complaint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상담 초기에 정했던 상담 목표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내담자가 평정하는 것이다. 2개 이상의 상담 목표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논의하여 적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3회기에 실시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8, 13회기 직후에 이 문제의 진전 정도를 내담자가 평정하게 하였다. 내담자는 그의 목표에 대한 진전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였는데, 0점(전혀 변화되지 않았다)에서 4점(매우 좋아졌다)에 반응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에게 중요도가 1~2번째였던 문항의 총합이 측정치가 되었다.

3) Derogatis 등(1977)이 개발한 것으로 김광일 등(198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였다.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담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SCL의 여러 지수들 중 전체 심각도 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를 사용 하였다. 이것은 각 문항에서 1점 이상 평정된 점수의 합계를 말한다.

4) 내담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문제 심각도를 측정하기 만든 10개의 문항으로 된 질문지이다(금명자, 1994). 내담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척도로 평정하여, 최저 0점에서 40점까지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표 1. 성공 및 실패 사례의 문제 심각도 사전 사후 측정치.

	GSI	문제 영역별 심각도		자존감	상담효과		
	사전/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전	사전 /사후	3회기	8회기	13회기
성공 사례	58 / 48	16 / 10	10 / 16	22 / 26	5	7	8
실패 사례	55 / 54	11 / 13	13 / 11	22 / 24	2	4	\

인 증가를 나타낸 것에 비하여 실패사례는 문제심각도 측정치들 및 상담효과 측정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담자

두 사례는 한 명의 동일한 상담자가 상담하였다. 이 상담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지녔으며 상담 경력은 약 8년이다. 이 상담자가 두 사례에 적용하였던 이론적 접근은 주로 정신역동적 입장을 위주로 절충주의적 방법으로 보고 되었다.

3) 평정척도

내담자 저항 척도 : 권희경(1999)의 내담자 저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성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의사소통의 회피 및 소극성, ② 모호한 의사소통, ③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④ 문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 ⑤ 상담 방식 및 상담자에 대한 저항이다. 이 척도는 제 3의 평정자에 의해서 녹음테이프와 축어록을 이용하여 평정된다. 각 문항은 0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에 표시하게 되었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의 저항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저항 평정 척도의 5개 문항에 대한 평정자들의 상반의 범위는 .92~.81의 범위로 꽤 높았으며, 두 개의 요인구조, 직접적 저항과 간접적 저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상담자 태도 척도 : 상담자 태도 척도는 권희경(1999)에 의해서 구성된 8개 문항의 평정척도이다. 이 척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부정적

인 태도로 강의적 태도, 판단적 태도, 불안정한 태도, 비몰입적 태도가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공감적 태도, 온정적 태도, 수용적 태도 그리고 존중적 태도가 있다. 문항의 구성에서 명료한 정의와 일관된 평정을 위한 세부준거들을 마련하였으며 높은 평정자간 신뢰도($r = .76 \sim r = .92$)가 확인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비판-존중 요인’과 ‘정서적 공유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이 척도는 내담자의 작업 동맹의 유대감 요인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척도는 저항 척도와 마찬가지로 평정자에 의해서 녹음테이프와 축어록을 이용하여 평정된다. 각 문항은 0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된다. “0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은 상당히 그렇다”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한 태도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4) 평정자

저항의 평정과 상담자 태도의 평정은 2명으로 진행되었는데, 1명의 평정자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상담 관련 박사과정 중이였으며, 나머지 한 명의 평정자는 상담심리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석사 학위소지자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5) 평정절차

평정 훈련 : 평정자들과 연구자는 평정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제 사례의 축어록을 읽고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예비 평정의 훈련을 하였다. 1회기의 평정이 끝난 뒤 평정 결과를 비교해가면서 평정 방식의 다른 점을 줄여나갔다.

본 평정 절차 : 평정자들을 두 개 조로 나누어 서

로 다른 사례의 단락을 평정 하였다. 본 평정에 앞서 평정자들에게 내담자들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현재 문제 및 주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읽게 하였다. 그리고 평정자들은 완전 축어록의 내용을 읽으면서 동시에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평정하였는데, 서로 상의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1개 단락에 대하여 5개 저항의 문항과 8개 태도 문항을 모두 평정한 뒤, 그 다음 단락을 평정하였다.

6) 평정 자료

성공 사례의 경우 총 13회기의 상담 회기 가운데, 테이프 손실과 녹음불량으로 인해 2개 회기가 제외된 11회기가 사용되었다. 그 중 1개 회기에 평균 약 7개 단락이 사용되어 총 76 단락이 평정되었다. 실패 사례의 경우 총 9개 회기가 사용되었다. 그 중 1개 회기에 평균 7.5개 단락이 사용되어 총 64 단락이 평정되었다.

7) 분석 절차

단계 1 : 저항 및 태도의 수준과 변화 패턴을 알기 위해서 저항 및 태도의 측정치들의 그래프를 제시하고, 저항과 태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별로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2 : 시간 계열 분석의 교차 상관 분석(CCF; Cross Correlation Function)을 통하여 시점이 다른 두 계열들,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즉 A시점에서의 저항과 A-1 혹은 A-2, A-n 시점의 태도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러나 두개의 시간 계열들(저항과 태도)이 높은 자기 상관(ACF; Auto-Correlation Function)을 지니면(계열적으로 얻어진 자료가 상호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함), 실제보다 높은 교차 상관 계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과정을 거친 후 교차상관을 구하였다. 첫 단계에서 각 개별적인 시간 계열들이 비정상성 경향성(nonstationary trend)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탐색은 저항과 태도의 각 변인들의 자기 상관을 구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는(plotting)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기서 '비정상성'이라 함은 각 시점에서 얻

어진 자료가 독립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시간의 효과 및 다른 오차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상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시간 효과를 제거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각 변인들(계열들)이 유의미한 자기상관을 지닌다면, 이는 그 자료가 '비정상화'(nonstationary)상태이므로, 각 변인들의 값을 변환함으로써 정상화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변환된 각 계열들이 다양한 lag(다양한 시간간격)에서 교차되어 상관 지워지고, 유의미한 lag 관계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만약 유의미한 lag 관계가 확인되면, 선행(leading) 변인들은 후행(lagging) 변인들의 잠재적인 원인으로서 해석된다. 만약 유일한 교차 상관이 lag 0에서만 있다면, 관계들의 인과적 방향은 가정할 수 없다(Kivlighan, Milton & Patton, 1996).

본 연구의 자료에서 저항 계열과 태도 계열들은 유의미한 자기상관을 지녔으므로, 저항 계열과 태도 계열의 자기 상관을 적절히 제거하여, 각 계열들을 정상화 상태로 변환한 뒤, 저항과 태도의 교차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변화 패턴과 두 변인의 관련성

성공 및 실패사례의 저항의 변화에 따른 상담자 태도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표 2에는 각 회기의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평균값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하였다. 그림 1은 성공 사례의 저항 및 태도의 변화 패턴이, 그림 2는 실패 사례의 변화 패턴을 나타낸다.

표 2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사례는 회기가 진전됨에 따라 저항이 감소되었으며, 상담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꽤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긍정적 태도는 후반부 회기에서 더욱 증가되는 추이

표 2. 성공 및 실패 사례의 저항 및 태도 점수들의 평균(표준편차).

	성공 사례			실패 사례			t		
	저항합	부정 태도	긍정 태도	저항합	부정 태도	긍정 태도	저항합	부정 태도	긍정 태도
1 ¹⁾	6.50 (2.89)	2.33 (0.71)	5.56 (3.30)	8.67 (3.28)	2.44 (1.57)	3.63 (1.58)	-1.46 (.16)	-0.180 (.85)	1.99 (.06)
2	7.25 (1.65)	2.70 (1.16)	5.25 (0.98)	8.61 (3.45)	2.44 (1.89)	5.28 (2.57)	-1.15 (.28)	0.359 (.72)	-0.032 (.97)
3	8.20 (1.88)	3.00 (1.15)	5.25 (2.19)	10.30 (3.53)	3.90 (1.13)	3.50 (1.73)	-1.26 (.22)	-1.76 (.09)	1.98 (.06)
4	\	\	\	8.60 (1.67)	4.40 (0.89)	2.80 (0.84)	\	\	\
5	6.00 (1.22)	0.80 (1.10)	7.40 (3.44)	9.00 (2.16)	2.25 (2.06)	4.00 (2.16)	-2.64 (.03)	-1.36 (.21)	1.71 (.12)
6	4.33 (1.15)	2.33 (0.58)	6.00 (0.00)	9.00 (2.39)	3.56 (1.55)	3.25 (0.76)	-3.16 (.01)	-1.30 (.22)	6.03 (.00)
7	6.00 (2.65)	2.33 (0.58)	6.33 (4.04)	7.89 (1.76)	5.67 (1.22)	1.44 (1.42)	-1.43 (.18)	-4.44 (.00)	3.32 (.00)
8	5.35 (2.53)	1.10 (0.74)	6.00 (1.94)	9.25 (0.96)	4.00 (1.41)	2.25 (0.50)	-2.94 (.01)	-5.14 (.00)	3.72 (.00)
9	5.67 (3.21)	3.33 (4.53)	4.67 (2.08)	9.22 (1.79)	3.00 (0.75)	2.78 (1.50)	-2.48 (.03)	0.522 (.61)	1.73 (.11)

¹⁾ 10회기 이후의 측정치는 성공사례만 해당되므로 기록하지 않았음.
 \는 결측치를 말함

를 드러냈다. 이에 비하여 실패 사례는 초기부터 종결까지 내담자 저항은 높은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러한 변화 패턴에서 드러나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주된 차이점은 내담자의 높은 저항에 대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 수준이다. 성공 사례는 초기의 높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실패 사례는 초기의 높은 저항에 대하여 성공 사례보다 낮은 수준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교차 상관 분석

이상에서 기술된 1절의 결과들은 성공 및 실패 사례에서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는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절에서는 두 사례에서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상호작용 패턴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시계열 분석의 교차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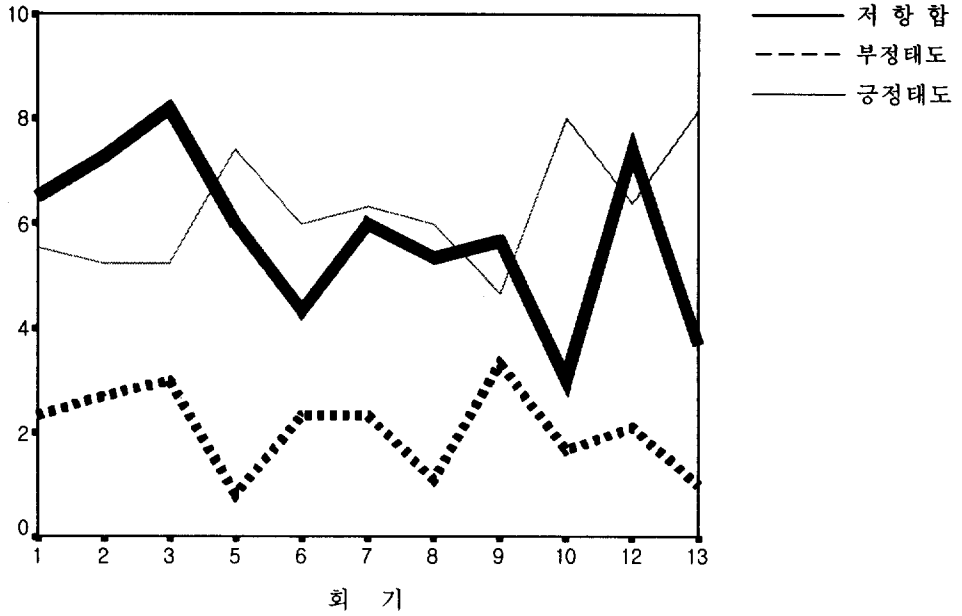


그림 1. 성공 사례의 저항 및 태도들의 변화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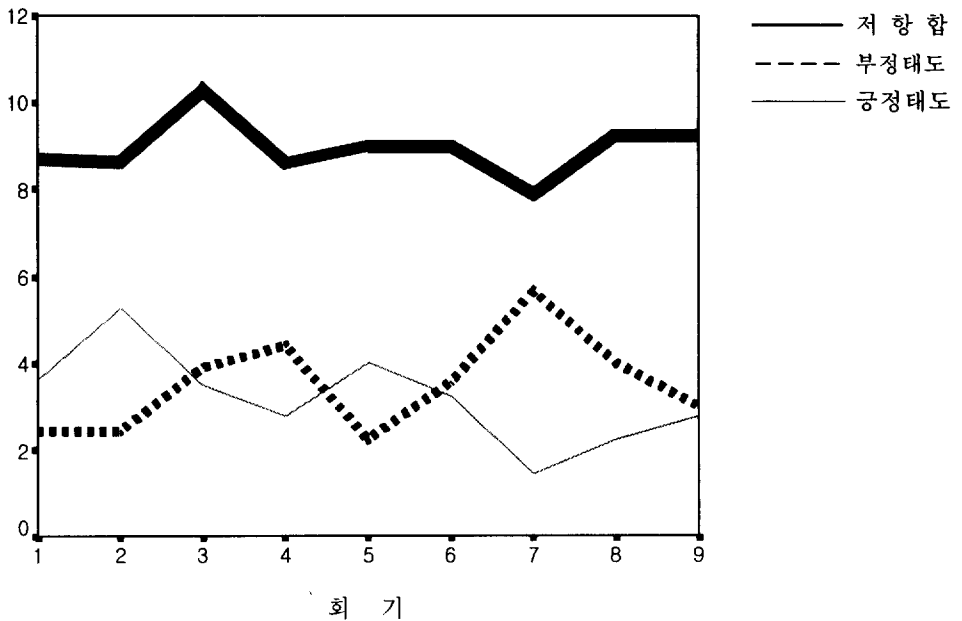


그림 2. 실패 사례의 저항 및 태도들의 변화곡선

표 4. 성공 사례의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의 태도의 교차 상관표.

	Lags									
	저항→태도					태도→저항				
저항	-4	-3	-2	-1	0	1	2	3	4	
긍정태도	-.04	.10	.38*	-.05	-.07	-.09	-.22	-.30*	-.06	
부정태도	.21	-.06	-.06	-.07	.21	.08	.29*	-.01	-.08	

* $p < .05$

표 5. 실패 사례의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의 태도의 교차 상관표.

	Lags									
	저항→태도					태도→저항				
저항	-4	-3	-2	-1	0	1	2	3	4	
긍정태도	.14	.08	.08	-.29*	-.38	-.03	-.01	.05	.03	
부정태도	-.08	-.35*	-.17	-.18	.19	.04	.24*	.11	.31*	

* $p < .05$

표 4의 교차 상관 분석표에서 시점 1과 시점 2의 한 개의 간격이 떨어진 상태를 lag 1이라 하며 마찬가지로 시점1과 시점 3의 두 개 간격이 떨어진 경우를 lag 2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lag 4까지만 분석을 하였다. lag 부호의 방향은 예측 변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적 lag는 현시점의 저항이 이후의 태도를 예측하는 것이며, 반대로 정적 lag는 현시점의 태도가 이후 시점의 저항을 예측하는 것이다.

표 4는 성공사례의 가설 1과 3을 예측하도록 한다. 가설 1은 “성공사례의 경우 저항이 상담자 태도를 긍정적 방향(긍정적 태도의 증가, 혹은 부정적 태도의 감소)으로 이끌 것이다”였다. 표 4에 의하면 -2 lag에서 $r = .38(p < .05)$ 로서, 이는 내담자 저항의 출현이 2개 단락이후의 상담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항의 출현이 이후의 상담자 부정적 태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 3은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 저항을 이

끄는 관계를 예측하는 것이었는데, +2 lag에서 $r = -.30(p < .05)$ 로서, 이것은 상담자의 긍정적인 태도의 증가는 2개 단락 이후의 내담자 저항의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는 2개 단락뒤의 내담자 저항의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2 lag ; $r = .29, p < .05$). 이런 결과는 성공사례를 예측하는 가설 1과 가설 3을 지지하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긍정적 태도의 증가는 내담자 저항의 감소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실패 사례의 교차상관분석 결과는 표 5이며, 가설 2와 가설 4에 대한 결과이다. 가설 2는 “실패사례의 경우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의 태도를 부정적인 방향(긍정적 태도의 감소 혹은 부정적 태도의 감소)으로 이끌 것이다”였다. 표 5에서 보듯이, -1 lag에서 저항과 긍정적 태도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드러났다($r = .29, p < .05$). 이것은 내담자 저항의 출현은 1단락 이후의 상담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감소시

켰음을 나타내며, 내담자 저항이 상담자의 태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한다. 그러나 -3 lag에서 $r = -.35(p < .05)$ 로써, 이는 내담자 저항이 3개 단락 뒤의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의 감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예측과는 달리 내담자 저항에 뒤이어 부분적으로는 상담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들로 볼 때 실패사례의 가설 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4는 실패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을 이끄는 관계를 예측하는 것이었는데, +2 lag와 +4 lag에서 각각 $r = .24$ 와 $r = .31$ ($p < .05$)로 나타난 바, 이는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는 2개 단락 뒤, 그리고 4개 단락 뒤의 내담자 저항의 증가를 이끌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이 후 내담자 저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4는 지지된 바, 실패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태도들 중 긍정적 태도보다 부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 태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현상임을 가정하고,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의 태도의 상호작용 패턴이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공 및 실패 사례에서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상호작용 패턴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변화 패턴 및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성공 사례는 회기가 진전됨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되는 추이를 나타냈으나 실패 사례는 저항이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추이를 드러냈다. 둘째, 상담자의 태도는 두 사례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나타난 바, 성공사례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더 우세하였고 부정적 태도는 두 사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음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시계열 분석의 교차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두 경우 모두에서 내담자 저항이 이 후의 상담자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공사례에서는 내담자 저항이 이후의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실패사례에서는 내담자 저항이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모두 감소시키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담자가 두 사례의 높은 저항에 대하여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둘째, 상담자 태도의 방향이 내담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공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의 증가는 이후 내담자 저항의 감소를 가져오나, 실패사례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이 후 저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의 증가는 이 후 내담자 저항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는 성공 및 실패사례에서 모두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담자가 판단적이고 지지적인 상담개입을 할수록 저항이 증가되며, 이와 반대로 상담자가 지지하고 촉진하는 비지시적 반응을 할수록 저항이 감소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Bischoff & Tracey, 1994; Patterson & Forgatch, 1985)과 일관된 맥락에 있다.

이상의 결과들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모두에서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 태도에 영향을 주며, 역으로 상담자 태도 또한 내담자 저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항과 상담자 태도는 서로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와의 일련의 상호작용적 결과라는 Langs (1981)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적 시각의 기본 가정은 바람직한 내담자 변화 혹은 부정적인 상담과정과 성과들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함수임을 말하는 것으로(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및 조성호, 1997),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의 태도의 상호작용적 패턴이 저항의 감소 및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서 내담자의 높은 저항에 대한 상담자 태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즉 성공사례에서는 상담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긍정적 태도의 증가 및 부정적 태도의 감소)으로, 실패 사례에서는 보다 부정적인 방향(긍정적 태도의 감소)으로 흘렀는데, 이것은 내담자 저항을 해결하고 상담의 진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를 비중있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실패사례에 해당되는 가설 2가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결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은 재차 부각될 수 있다. 연구의 가설 2는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의 감소 혹은 부정적 태도의 증가를 끌 것이다”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결과에 의하면 내담자 저항에 대하여 상담자는 긍정적 태도도 감소시켰을 뿐 만 아니라 부정적 태도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그 때의 상담상황을 예측하자면, 실패사례의 높은 저항에 대하여 아마도 상담자는 긍정적 태도도, 부정적 태도도 모두 감소시키는 꽤 위축된 상담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저항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은 긍정적 태도라는 점을 볼 때 저항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저항의 해결에서 상담자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상담자의 태도 여부에 따라 저항 및 성과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Greenson, 1967; Rogers, 1942, 1954; Streat, 1985)을 지지한다. 상담자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일관되게 지지하지 못한 실정인데(Beutler, Johnson, Neville, & Workman, 1972; Jones, Wynne, & Watson, 1986; Lambert & Bergin, 1992; Parloff, Watson, & Wolfe, 1978; Truax & Carkhuff, 1967; Truax & Mitchell, 1971), 이는 주로 연구들마다 그 정의가 다르고 측정의 객관성 여부, 그리고 너무 전반적인 연구 방법론(gross method)의 문제에 기인된

다(Lambert, DeJulio & Stein, 19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우선 상담자 태도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통하여 상담자 태도가 상담 과정중의 내담자 저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은 성과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태도의 효과를 명료하게 밝힐 수 있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교차 상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저항과 태도의 교차상관은 유의미한 수준이긴 할지라도 상관의 정도가 작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의 교차상관 분석을 산출하기 위해서 각 계열들이 지나는 자기 상관을 모두 제거하여 꽤 만족스런 정상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교차상관의 크기를 축소시킨 결과를 나오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의 통계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상담의 상호작용 현상을 검증하였을지라도 아직은 방법론이 초보적인 단계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계열들이 자기 상관을 지닐 때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제거하는지의 문제, 곧 각 계열들을 정상화하는 방법론적 문제를 정교화하여 저항과 태도의 상호작용 연구를 반복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저항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에 국한하여 연구했을 뿐, 저항에 대한 특정한 개입이나 반응들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저항감소에 기여하는 상담자 요인으로는 저항을 다루는 상담자의 자질의 문제일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저항 개입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성공 및 실패의 단일사례에 국한된 연구이므로,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에 다소의 제한이 있으며, 이에 앞으로는 반복검증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정혜(1991). 임상에서의 단일사례 실험연구법. 한국

- 심리학회편, *현장연구방법론* 각론. 서울: 성원사.
- 권희경(1999). 상담자 태도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1(2).
- 김인규(1992). 상담 상호작용의 사례별 시계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윤호균(1983). *삶·상담·상담자*. 서울: 문지사.
- 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1997). 상담 심리학의 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사.
- 정방자(1998). *정신역동적 상담*. 서울: 학지사.
- 조성호(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 특성 및 작업동맹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Altman, H. A. (1973). Effect of empathy, warmth, genuineness in the initial counseling intervie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2, 225-228.
- Bank, W. M. (1972). The differential effects of race and social class in hel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90-92.
- Basch, M. (1982). Dynamic psychotherapy and its frustration. In P.L. Wachtel(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Bergin, A. E., & Suinn, R. M. (1975). Individual psychotherapy and behavior therapy. In M. R. Rosenber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pp. 509-556). Palo Alto, CA: Annual review.
- Bischoff, M. M., & Tracey, T. J. (1995). Client resistance as predicted by therapist behavior: A study of sequential depend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 487-495.
- Brenner, C. (1976). *Psychoanalytic technique and psychic conflic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hamberlain, P., Patterson, G., Reid, J., Kavanagh, K., & Forgatch, M. (1984). Observation of client resistance. *Behavior Therapy*, 15, 144-155.
- Corey, G. (1991).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4th). 심리 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조현재 공역. 시스마플러스, 1995.
- Fine, R. (1982). *The healing of the mind*. New York: The Free Press
- Foreman, S. A., & Marmar, C. R. (1985). Therapist actions that address initially poor therapeutic alliances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42, 8, 922-926.
- Freud, S. (1917). *Delusion and dream*. London: Allen & Unwin.
- Garfield, S. L., & Bergin, A. E. (1971). Therapeutic conditions and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 108-114.
- Gladstein, G. A. (1987). Counselor empathy and client outcome. In G. A. Gladstein & Associates(Eds.), *Empathy and counseling: Exploration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Garduk, E. L., & Haggard, E. A. (1972). Immediate effects on patients of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s. *Psychological Issues*, 7(Monograph 28)
- Goldfried, M. R. (1982). Resistance and clinical behavior therapy. In P. L. Wachtel(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Gomes-Schwartz, B. (1978). Effective ingredients in psychotherapy: prediction of outcome from process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23-1035.
- Gomes-Schwartz, B., Hadley, S. W., & Strupp, H. H. (1978). Psychotherapy and behavior therapy. I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Palo Alto, Calif. : Annual Reviews.
- Gottman, J. M., & Markman, H. J. (1978). Experimental designs in psychotherapy research. In S. L. Garfield & A. E. Bergin(Ed),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2nd ed.,

- pp.23-62). New York: Wiley.
- Greenson, R. (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dley, S. W., & Strupp, H. H. (1976). Contemporary views of negative effects in psychotherapy. *Arch Gen Psychiatry*, 33, 1291-1302.
- Hartley, D. E., & Strupp, H. H. (1983). The therapeutic alliance: Its relationship to outcome in brief psychotherapy. In J. Masling, (Ed.), *Empirical studies in analytical theories*(Vol. pp. 1-37). Hillsdale, NJ: Erlbaum.
- Henry, W. P., Schacht, T. E., Strupp, H. H., Butler, S. F., & Binder, J. L. (1993). Effects of training in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Mediators of therapists' responses to trai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441-447.
- Jones, E. E., Ghannam, J. Nigg, J. T., & Dyer, J. F. P. (1993). A paradigm for single-case research: The time series study of a long-term psychotherapy for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3, 381-394.
- Jones, E., Wynne, M. F., & Watson, D. D. (1986). Client perception of treatment in crisis intervention and longer-term psychotherapies. *Psychotherapy*, 23, 120-132.
- Kivlighan, Jr. D. M., Multon, K. D., & Patton, M. J. (1996). Development of the Missouri Addressing Resistance Scale. *Psychotherapy Research*, 6, 4, 291-308.
- Lambert, M. J., Dejulio, S. S., & Stein, D. M. (1978). Therapist interpersonal skills: Process, outc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5, 467-489.
- Lambert, M. J., & Bergin, A. E. (1992).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psychotherapy research. In D. K. Freedheim (Ed.), *History of psychotherapy: A recent change* (pp. 360-39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ngs, R. (1981). *Resistances and Interventions: The nature of therapeutic work*. Northvale, NJ: Jason Aronson.
- Lazarus, A. A., & Fay, A. (1982). Resistance or rationalization? A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 In P.L. Wachtel(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Luborsky, L., Bachrach, H., Graff, H., Pulver, S., & Christoph, P. (1979). Pre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transfer interpretations: A clinical-quant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7, 391-401.
- Mahalik, J. R. (1994). Development of the Client Resistanc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 58-68.
- Malan, D. H. (1976). The current position of research in psychotherapy. In D. H. Malan. ed. *Toward the validation of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 Meichenbaum, D., & Gilmore, J. (1982). Resistance from a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 In P.L. Wachtel(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O'Malley, S. S., Suh, C. S., & Strupp, H. H. (1983). The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A report on the scale development and a process outcom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581-586.
- Parloff, M., Waskow, I., & Wolfe, B. (1978). Research on therapist variable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S. L.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n empirical analysis*(2nd ed., pp. 233-282).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 & Forgatch, M. S. (1985). Therapist

- behavior as a determinant for client noncompliance: A paradox for the behavior modifi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 846-851.
- Patton, M. J., Kivlighan, Jr. D. M., & Multon, K. D. (1997). The missouri psychoanalytic counseling research project: Relation of changes in counseling process to client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2, 189-208.
- Rogers, C. R. (1942).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칼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한성열 공역. 서울: 학지사, 1998.
- Rogers, C. R. (1954). & Dymond, R. F. (1954).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uller, R., & Crits-Christoph, P., & Connolly M. B. (1991). The Resistance Scale: Background and Psychometric Properties. *Psychoanalytic Psychology*, 8, 2, 195-211.
- Strupp, H. H. (1976). Themes for psychotherapy research, In Claghorn (Ed.) *Successful Psycho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Inc,
- Strupp, H. H., & Hadley, S. W. (1979). Specific versus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1125-1136.
- Strean, H. S. (1985). *Resolving resistances in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Truax, C. B., & Mitchell, K. M. (1971). Research on certain therapist interpersonal skill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New York: Wiley.
- Truax, C. R., & Wittmer, J. (1973). The degree of the therapist's focus on defense mechanisms and the effect on therapeutic outcome with institutional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 201-203.
- Winston, B., Winston, A., Samstag, L. W. (1994). Patient defense/therapist interventions. *Psychotherapy* 31, 3, 478-490.
- Yalom, I. D., Lieberman, M. A., & Miles, M. M. (1971). A study of encounter group casualt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5, 16-30.

원고 접수일 2000. 12. 6.

수정원고접수일 2000. 1. 11.

게재결정일 2000. 1. 11.

The Interaction of Client Resistance and Counselor Attitude on Success and Fail Cases

Hee Kyung, Kwon Chang ill,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study investigated the interaction phenomenon of the client resistance and counselor attitud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ross correlation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of resistance and counselor attitude variables was performed on success and fail cases. The result indicated that (a) in the success case, there was a lead-lag relationship in which client resistance would lead the increase of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Also there was a lead-lag relationship in which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would lead the decrease of client resistance. (b) in fail case, client resistance would lead the decrease of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But counselor's positive attitude would not lead the decrease of client resistance. It means that the interaction pattern of client resistance and counselor's attitude may influence on resistance reduction and outcome.

Keywords : resistance, counselor attitude, time series analysis, interaction of client and counselor